

‘야권 통합 길을 묻다’ 연쇄 인터뷰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 문재인은 누구

시위 전력 판사 임용 안돼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남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및 제적되었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강제징집으로 끌려 간 군대에서는 특전사 수중폭파요원으로 근무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으며 동의대 방화사건 등 시국사건 등을 주로 맡아 변론했다.

변호인단 꾸려盧 탄핵 수습



당시 그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경남 민변 대표,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등을 맡아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으며 서로 존중하는 ‘동지적 관계’를 유지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이 나빠져 사직했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변호인단을 꾸려 탄핵정국을 수습한 뒤, 2005년 청와대 시민 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았으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침착하고 담담한 그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운명’ 출간후 대선 주자 급부상

자서전 ‘운명’ 출간 이후,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애인 대선 주자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추월하며 지지를 선두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애인 대통령이 우선이라며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간에 차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 아닌 연대만으로 총선후보 단일화 어려울 것”



최근 애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인터뷰 날짜는 우연하게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인 1일이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노랑색 바탕개비가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만난 문 이사장은 바쁜 일정 탓인지 조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담담했다.

이날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문 이사장은 애권대통합의 시대적 가치와 희망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왜 애권 대통합인가.

▲지금 가장 절박한 과제는, 이명박 정권이 역ус시킨 민주주의와 복지, 평화 등의 소중한 가치들을 역사의 흐름에 맞게 되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개혁 진영이 하나가 돼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난 1990년 3당 합당 이후 분열을 거듭했던 민주·진보·개혁진영이 복원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집권을 이루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다.

-대선과 총선 승리를 위한 애권대통합 정당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통합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공동 정부, 연합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연정이라는 것이 국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면 깨지기도 하는 것이어서 언제까지 지속된다면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 연대라는 전제를 통해 모인다는 점에서 선거 치르면 곧바로 헤어지는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애권 연대가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진보 정당들의 입장인데.

▲애권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어렵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성과를 거뒀지만 이는 지방의원과 단체장,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선거가 있었다는 점에서 각 당의 여지가 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를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애권 단일화는 정당 지지자와 후보들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순천과 김해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러한 점이 극명히 나타났다. 결국, 애권 연대에 의한 단일화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확실한 방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총선 전 애권 대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정치 일정상, 올해 말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애권 대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로 치러져야 한다. 총선 직전의 애권 대통합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정책연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통합을 위한 수십 기구도 연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새해에는 애권대통합의 실질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통합이 실패한다면 연대가 대안인가.

▲물론 대통합에 실패한다면 차선의 방안으로 애권 연대가 도모돼야 한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승리 방안은 연대보다 통합이다. 대선 승리 후의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대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애권 대통합이 성사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의 희망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애권대통합을 위한 민주당의 양보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우선 애권대통합의 가치와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서거 전 두 달 전에 만났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세력이 7이고 다른 정당의 세력이 3이면 오히려 민주당이 3의 지분을 가지고 다른 정당에 7의 지분을 줘야 한다는 자세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기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침해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각 정당 간에 서로 우세한 지역들이 있는데 진보 정당들이 당선 가능한 많은 후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협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산·경남지역 민심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

대통합 위한 민주당 全大
연말까지 꼭 해내야

부산·경남지역 민심

이젠 한나라 일방 지지 안해

차기 대선 출마 여부

총선 좋은 성과낸 후 생각

”

▲한나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민심은 완전히 바뀌었다. 정말 많이 변했다.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지사의 당선과 김정길 후보의 45% 득표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맘에 들지 않지만 아직도 민주당을 비롯한 앙상들을 대안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 그래서 대통합 정당이 필요하다. 애권의 대통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부산·경남 지역의 정치 지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고 이는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는데 계기가 될 것이다.

-민심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나라당을 20년 동안 지지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부산의 인구는 350만이 무너졌다. 제2의 경제 도시는 현재 인천이다. 특히, 과거 부산과 경남은 유신독재에 맞서 부마항쟁을 일으켰고 6월 항쟁에 적극 나서는 등 전통적인 애권 도시였고 광주

못지않는 민주화의 성지였다.

-부산·경남 등 영남지역에서 기대하는 내년 총선의 석수는.

▲현실적으로 10석만 넘기더라도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큰 계기가 되고, 이는 민심의 상호작용을 불러일으켜 대선에까지 엄청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애권 대통합은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병폐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꿔된다.

▲애권 대통합의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이다. 애권 대통합 정당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합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전국 정당이 될 것이다.

-대선 출마 여부는 언제쯤 밝힐 것인가.

▲통합운동을 시작한 몇몇 지금은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선택은 통합이 잘 되고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후에 생각할 것이다.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는데, 대선행보인가?

▲그렇지 않다. 노무현 재단 기념 사업의 하나로 노 전 대통령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 현안이 발생, 조금 연기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 상승 요인을 어떻게 보는지.

▲이명박 정부의 심각한 실정과 민심 이변에 따른 정권교체의 열망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원이 매우 큰 것 같다. 제가 정치에 거리를 뒀고 정치적이지 않게 보여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게 그런 역량이 있는지 참고만스럽다. 한편으로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후광도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독주 구도를 어떻게 보는지. 정치인 박근혜 대표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연한 현실이다. 애권과 시민사회진영이 대통합 등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분의 장점이라면 역시 원칙, 신뢰성, 일관성 등의 이미지를 잘 견지해오고 있으며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단점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이 별로 없는 듯이 보이고 유신시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등 시대 퇴행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서울시장 보선 애권 단일 후보 선출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통합 단일 후보로 치러야 하고 애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선거를 통해 원 투표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정당들이 나름대로 경선 첫 오프를 통해 후보를 압축, 본선에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민주 정부 대통합을 만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분 대통합이 안타깝게 눈 감으시면서 남긴 유언 “깨어 있는 시민, 행동하는 애국심”을 모두가 늘 가슴에 새기고 함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싶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명인의 자부심!

국가지정 식품명인이 빛어낸 정성- 창평한과

창평한과는 국가지정 식품명인이 만든 고품격 정통 한과입니다.
3대를 이어온 맛과 품격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호정가의 자부심입니다.

창평한과

제품문의_ 061. 383. 6446
www.hojeongfood.com

호정식품주식회사 본사/제1공장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35-1

남도 미향

입안 가득 스미는 오색빛깔 고운 자태

안복자한과는 농림부 신지식인장인 안복자 선생의 이름을 따 만든 맛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농림부 전통 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안복자한과는 우리 민족 고유의 과자인 한과의 맛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적인 디자인과 격조있는 고전문양을 적용한 고품격 한과를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개별 포장하여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다운 웃음처럼..
오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맛 안복자한과

복타원
복사초롱
한미음
김부각
김부각1호
청사초롱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향리 431-1
T. 061)382-8891 F. 061)383-8898
www.anbokja.co.kr

안복자한과

아루화

최고의 것을
최고의 분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빚은 명품 선물세트

귀한 분을 향한
그 정성스런 마음을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았습니다.

백리향
447x395x105mm
150,000원/지향
아리
447x395x70mm
100,000원/지향
자연당
410x360x80mm
65,000원/지향
꽃초롱
410x320x70mm
45,000원/지향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3호
'안복자한과'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180-1
TEL 061-383-8283 FAX 061-383-8347
www.damyang.co.kr

담양한과